

순조로운 타이거즈 캠프...새 사령탑 선임 '촉각'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감독이 없어서 고민? 감독 선임 이후가 걱정이다.

KIA 타이거즈는 스프링캠프 출발에 앞서 '감독 계약해지'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2024시즌 준비가 시작될 만큼 KIA 캠프가 마련된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 우려의 시선이 쏠렸다.

사령탑 부재 속에 시작된 캠프는 11일 세 번째 턴을 마무리했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훈련은 22일 일본 오키나와로 장소를 바꿔 진행되는 만큼, 캔버라 캠프는 반환점을 돌았다.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KIA 캠프는 '이상 무'. 오히려 책임감이 더해지면서 캠프 분위기는 더 뜨겁다.

캠프 출발에 앞서 '주장' 나성범은 "다 큰 성인들이다. 팬들 걱정하지 않게 동요하지 않고 선수들 모두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그의 이야기대로 선수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캠프를 소화하고 있다.

주장 나성범은 물론 '최고참' 최형우, '투수 만능' 양현종 등은 밝은 표정으로 후배들과 어울리고, 쓴소리가 필요할 때는 베테랑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은 '막내조'의 역할을 하면서도 개인 경쟁을 위해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새 얼굴'들도 KIA 캠프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 몫하고 있다.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은 '플레이어 코치'처럼 바쁘다. 불펜 피칭 페이스를 올리면서 KBO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동료들의 질문에 답을 하느라 분주하다.

'스위퍼' 장작을 준비하고 있는 황동하는 크로우를 통해 세밀함을 더하고 있다. 11일에는 정해영, 임기영이 네일을 붙잡고 변화구 평가를 부탁하기도 했다.

'3일 훈련 1일 휴식' 예정대로 선수들 자기 자리서 캠프 소화 왕조 재건 '마지막 퍼즐' 감독 타이거즈와 조화 이룰 인물로

점심 시간에는 '루키' 조대현이 새 외국인 원투펀치와 한 테이블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고, 크로우는 밥을 먹다 말고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코치들과 대화를 하는 투수들의 모습은 캔버라 캠프의 흔한 풍경,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있다.

선수들끼리 공유하고 배우는 것도 많다. 선수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쉬는 시간 틈틈이 훈련 방법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투수-야수 경계도 없다.

11일 투수조 훈련이 끝난 뒤 이의리·윤중현·전상현이 그라운드에서 모여 잠볼을 가지고 근력 훈련에 나섰다. 타격 훈련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김호영, 김규성 등도 가세하면서 투-타 합동훈련이 전개됐다. 점심도 잇는 투수들의 훈련은 최형우의 버스 출발 시간까지 막을 수 있었다.

선수들끼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훈련 방법을 알려주고,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도 이번 캠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새 얼굴이 더해진 코칭스태프도 '시스템'에 맞춰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정재훈과 이동걸 코치를 영입해 마운드에 변화를 줬다. SSG에서 활동했던 박창민 수석 트레이너를 중심으로 트레이닝 파트도 개편했다.

새로운 팀에서의 새출발에 앞서 '감독리스크'가 발생했지만 시스템에 따라 코칭스태프가 움직이면서 선수들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전 7시 30분 경기장으로 향하는 열리조의 차량에는 포수조가 먼저 탑승한다.

타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수비수로서의 역할도 중



KIA 타이거즈의 투수 이준영(왼쪽부터), 양현종, 박준표가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러닝을 하고 있다.

요한 자리. 불펜 피칭에 맞춰 투수들과 호흡도 맞춰야 하는 만큼 포수들은 일찍부터 움직이면서 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포수 한준수는 "수비하다가 방망이 치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먼저 방망이 치고 수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했다.

지켜보는 시선이 많은 만큼 선수단은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에 임하고 있다. 또 지난 시즌 눈앞에서 '가을잔치'의 꿈을 놓쳤던 만큼 선수들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투-타 그리고 신-구 조화가 이뤄지면서 KIA는

2024시즌 다크호스로 꼽힌다. 내부의 기대감도 크다. 총총해전 전력을 바탕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수들은 올 시즌 '가을잔치'를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사령탑이다. 뜨겁게 또 물 흐르듯 캠프가 진행되고 있지만 '감독'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다. 새 사령탑 선임이 임박하면서 선수단도 한국발 소식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사령탑의 성향에 따라 준비했던 부분과 앞으로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만큼 KIA에는 '마지막 퍼즐'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타이거즈비전 마련과 강팀으로서의 기

반을 다지기 위해서도 사령탑은 중요하다. KIA는 앞서 감독이 교체될 때마다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타이거즈 색이 아닌 감독의 색에 맞춰 팀이 움직이면서 가지고 있는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현장과 프런트의 엇박자가 선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잔치를 위한 밥상은 차려져 있다. 구단이 '왕조 재건'을 위한 확실한 틀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선수들의 신바람 질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호흡을 맞춰야 한다.

주인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다. /글·사진=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 호주서 '유쾌한 설날'

한인회장이 만든 떡국·김치전 '인기 만점'...웃음 만발 웃놀이 나성범·소크라테스 'MVP'

'호랑이 군단'이 타국에서 유쾌한 설날을 보냈다.

설날이었던 지난 10일 오전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선수단은 평소처럼 캠프 일정을 소화했다.

1일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캠프를 시작한 KIA 선수들은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캠프에서 두 번째 휴식일을 보냈던 선수들은 9일에 이어 10일에도 훈련 일정을 이어갔다.

오전 8시 열리조의 워밍업을 시작으로 막을 연 하루. 이날 불펜에서는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그리고 이의리, 이준영, 박준표, 전상현, 박도규, 김기훈, 김민주가 피칭을 이어갔다.

세 번째 불펜 피칭에 나선 이들은 투구 개수를 늘려 두 세트로 나눠 피칭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이른 개막에 맞춰 양현종도 빠른 페이스로

첫 불펜피칭에 나섰다. 양현종은 '컨디션 체크'에 중점을 두고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감을 잡기도 했다.

투수-야수조가 한 자리에 모여 팀플레이도 하면서 오전이 빠르게 지나갔다.

매년 2월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치르는 선수들에게 '설'은 훈련날 중 하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선수들은 점심으로 '설 특식'을 맛봤다.

이번 캠프 기간 선수단의 점심을 책임지고 있는 권효순 캔버라 한인 회장이 명절을 맞아 떡국과 LA 갈비, 김치전 등을 준비했다. 한식당인 강남 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권 회장은 솜씨를 발휘해 선수들에게 명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줬다.

이른 아침부터 공들여 준비한 음식은 선수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음식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선수들은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점심 이후에는 설맞이 웃놀이 대회가 펼쳐졌다.

코칭스태프 A·B조, 투수 A·B조, 야수 A·B조, 프런트A·프런트+포수조로 나눠 예선이 진행됐다.

그리고 치열한 승부를 거쳐 외야수로 구성된 야수A조와 투수 최고참 양현종이 이끄는 투수A조의 결승전이 성사됐다.

두 팀을 대표하는 양현종과 나성범이 난란히 웃을 던지면서 시작된 경기는 투수조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았다. 결이 나오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 투수조 주자였던 전상현이 개를 던지면서 야수조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야수조에는 '해결사' 나성범이 있었다. 모로 일단 다시 한번 웃을 잡은 나성범은 투수조 말을 잡기 위해 필요했던 걸까지 던지면서 웃놀이가 진행될 실내연습장을 들었다 놓았다.



설날 웃놀이 대회에서 역전승의 발판을 놓으면서 MVP에 선정된 나성범.

그리고 중요했던 순간 백도를 기록하며 우승을 내줄 뻔했던 이창진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흥미진진했던 웃놀이 대결이 외야수조의 승리로 끝났다. 웃놀이도 대중하지 않는 프로들의 한판 승부에 결승전을 펼친 선수들은 물론 경기를 지켜본 이들



규칙을 숙지하고 웃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성범과 MVP를 받은 소크라테스.

모두 스트레스를 날리는 유쾌한 시간이 됐다.

한편 전력분석을 통해 웃놀이 말을 읽고 우승에 기여한 소크라테스와 투수조를 상대로 제대로 '한방'을 날린 나성범이 웃놀이 대회 MVP로 선정됐다. /글·사진=wool@kwangju.co.kr

또 졌다...페퍼스 결국, 최다연패 신기록

IBK 기업은행 0-3 지며 '21연패'

페퍼스가 V-리그 여자부 최다 연패 기록을 새로 썼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설날이었던 지난 10일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IBK기업은행전에서 세트 스코어 0-3(14-25 12-25 19-25)으로 셋아웃패하며 21연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도로공사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변화를 예고했던 페퍼스는 11월 10일 GS칼텍스를 상대로 폴세트 접전 끝에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승리가 페퍼스의 마지막 승

리로 남아있다.

GS칼텍스전 이후 열린 21경기에서 패배만을 기록했던 페퍼스는 이번 경기로 프로여자배구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새로 썼다. 이전 기록은 정관장(당시 KGC인삼공사)이 2012-2013시즌에 기록했던 20연패다.

페퍼스는 이날 경기에서 1-2-3세트 모두 20점에 달지 못한 채 IBK기업은행에 승리를 내어줬다.

3세트 17-17동점 상황에서 상대 임혜림의 속공과 블로킹 특점에 무너지기 시작한 페퍼스는 세트 후반 팀 범실과 IBK기업은행의 아베크롬비의 강력한 공격에 완패했다.

아베크롬비는 이날 20득점을 올렸고 황민경과 표승주도 각각 11득점, 10득점을 기록하면서 페퍼스를 공략했다. 반면, 페퍼스의 최다 득점은 박정아

가 올린 9점에 불과했다.

2021년에 창단된 페퍼스는 2021-2022시즌과 2022-2023시즌을 모두 최하위인 7위로 마무리했다. 두 시즌에서 모두 17연패를 기록하며 당시 프로여자배구 단일시즌 최다 연패 3위 타이틀을 기록하기도 했다.

페퍼스는 팀의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출신 박정아와 검증된 외국인 선수 야스민을 영입했지만 세 번째 시즌에 21연패까지 빠졌다. 5라운드에 접어든 현재 페퍼스는 2승 26패, 승점 8점만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이 거듭될 수록 성장은 고사하고 새로운 연패 기록까지 쓰면서, 퇴보하고 있다는 평을 면치 못하고 있는 페퍼스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13년만에...김우민, 세계수영 자유형 400m 금

김우민(22·강원도청)이 박태환(34) 이후 13년 만에 한국 수영에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선물했다.

김우민은 12일 열린 2024 도하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7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대회 경영 종목 첫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리는 영예도 누렸다.

300m를 탄할 때까지 세계 기록 페이스를 유지한 김우민은 2위 알라이자 워닝턴(23·호주)의 막판 추격을 따돌리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워닝턴의 기록은 3분42초86으로 김우민보다 0.15초 느렸다.

김우민은 박태환이 보유한 한국 기록 3분41초53은 경신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최고 기록(3분43초92)을 1초21이나 앞당기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이날 전까지는 한국 선수 중 세계수영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박태환, 단 한 명뿐이었다.

박태환은 2007년 멜버른과 2011년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김우민 덕에 한국 수영은 13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이번 도하 세계수영선수권에는 세계적인 수영 스타들이 '파리 올림픽 준비'를 이유로 대거 불참했다. 하지만, 남자 자유형 400m에서는 후쿠오카 대회 1~4위 중 금메달리스트 새뮤얼 쇼트(호주)만 불참했다.

후쿠오카 대회 2위이자 도쿄 올림픽 챔피언 아메드 하프나우위(튀니지), 후쿠오카 대회 3위 마르텐스, 4위 길레르미 코스타(브라질) 등 강자들이 이 종목에 출전했다. 워닝턴은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 이 종목 챔피언이기도 하다. /연합뉴스